

# 해남 '솔라시도', 지역 거점 미래 도시 조성

솔라시도는 한양이 그룹 계열사인 보성산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전남도 등과 함께 해남군 일대 632만 평 부지에 조성하는 친환경 미래 도시다.

미래 도시가 갖춰야 할 '에너지', '정원', '스마트'를 주요 콘셉트로 한다. 호수와 바다, 정원을 품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청정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각종 스마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솔라시도는 서남 해안권 발전 프로젝트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사업에서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로 지정됐다.

솔라시도는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데이터센터와 발전시설이 인접해 있고 생산 발전량의 대부분을 인근에서 소비하도록 설계했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동시에 저탄소·친환경의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솔라시도는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의 '2021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솔라시도는 '미래 표준 도시'를 메인 슬로건으로 ▲ 전기차 공유 서비스 ▲ 공유 차량 자율 주차 서비스 ▲ 자율 주행 셔틀버스 운영 ▲ 쓰레기 처리시설, 스마트 폴 등 태양광을 이용한 인프라 및 생활 서비스 ▲ 메타버스 관광시스템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솔라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정원 속 도시'를 실제로 구현한다는 점이다. 주택이나 건물 사이에 인위적으로 공원을 배치한 기존의 정원 도시와 달리 솔라시도는 본래 그 자리에 있던 자연을 최대한 유지한 채 자연 속에 도시를 그대로 담아낸다.

도시 전체를 9개의 테마로 구성하고 테마별 특색을 담은 정원을



1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조감도 2 솔라시도 전경

개발 중인 솔라시도는 지난 2020년 자연과 사람, 에너지가 공존하는 의미를 담아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중심에 '태양의 정원'을 조성했다.

복합문화공간인 '산이정원', 꽃단지과 연계한 '대지의 정원', 솔라시도 골프앤빌리지 내 '별빛정원' 등 추가 정원을 갖추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솔라시도는 학교, 병원 쇼핑, 호텔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솔라시도에 오픈한 '솔라시도 CC' 주변에 레저와 주거가 어우러진 명품 복합 공간 '솔라시도 골프앤빌리지'를 조성 중이다. 총 57만 평 규모의 이 공간에는 레저, 휴양, 주거 등 다양한 테마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비롯해 호텔, 게스트하우스, 쇼핑몰 등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솔라시도가 진정한 의미의 미래도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